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10년 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 7. 25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10년 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_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 7. 25

본 보고서는 <월간중앙> 8월호 (2012.7.19)로 실린 특별기고 “세대투표율과 2012 대선 승리방정식 : 5060세대가 승부 가른다” 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난무하는 투표율 공식

‘투표율 55%를 넘으면 야권이 승리한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캠프나 주요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던 선거예측의 방정식이다.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는 투표율 45%를 넘으면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고 넘지 못하면 나경원 후보가 승리한다는 통설이 지면을 장식했다. 실제 48.6%의 투표율로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러한 공식들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었다.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치러진 7.28 은평을 재보궐 선거에서는 ‘투표율 35%를 넘으면 야당이 승리할 것’ 이라는 예측과 달리 40.5%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의 이재오 후보가 큰 격차로 승리했다.

이러한 투표율 공식은 정교한 모델이나 경험적 검증 없이 전문가의 권위를 빌어 유통되고 있고, 이러한 공식이 깨지면 근거 없는 책임공방과 논쟁을 유발한다. 가까운 예로 4.11 총선에서 선거승리 공식에 거의 근접한 54.2%의 투표율을 기록 했음에도 야권이 패배하자, 인터넷 공간에서 20대 투표율이 27%였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20대 개새끼’ 라는 격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야당 지지층의 공적으로 매도되었다. 곧이어 방송3사출구조사의 결과를 간접 추산하여 서울 20대 투표율이 64%라는 일부 보도가 있자 SNS 공간에서 ‘수도권 승리의 히어로’ 로 20대를 추앙되는 반전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선거후 선관위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19세 투표율이 47.2%, 20대가 41.5%, 30대 45.5%였다고 발표했다. 40대 52.6%, 50대 62.4%, 60대 이상 68.6%로 나타나 젊은 세대보다 나이든 세대의 투표율이 높은 투표패턴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7% 개새끼론’ 과 ‘64% 히어로론’ 모두 루머에 불과했음이 판명된 것이다. 전체투표율이 54.2%인데 20대 투표율이 27%로 비정상적으로 낮았다면 5060세대의 투표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야 했다. 반대로 20대 투표율이 64% 수준이었다면 다른 세대들의 투표율이 역으로 낮아야 투표율 평균 54.2%가 가능해진다.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애초에 비현실적인 주장이었다.

이처럼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투표율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투표율의 변화에 따라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일종의 투표공학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현재 투표율과 관련된 투표공학의 방정식에는 몇 가지 잘못된 전제와 접근법으로 인해 우려스러운 대목을 내포하고 있다. 4.11 총선 이후 냉온탕을 오간 여론의 변덕은 이러한 우려의 징후를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공학적 투표율 예측의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치공학이 아닌 정치 본연의 관점에서 세대별 투표율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2. 18대 대선 투표율은 상승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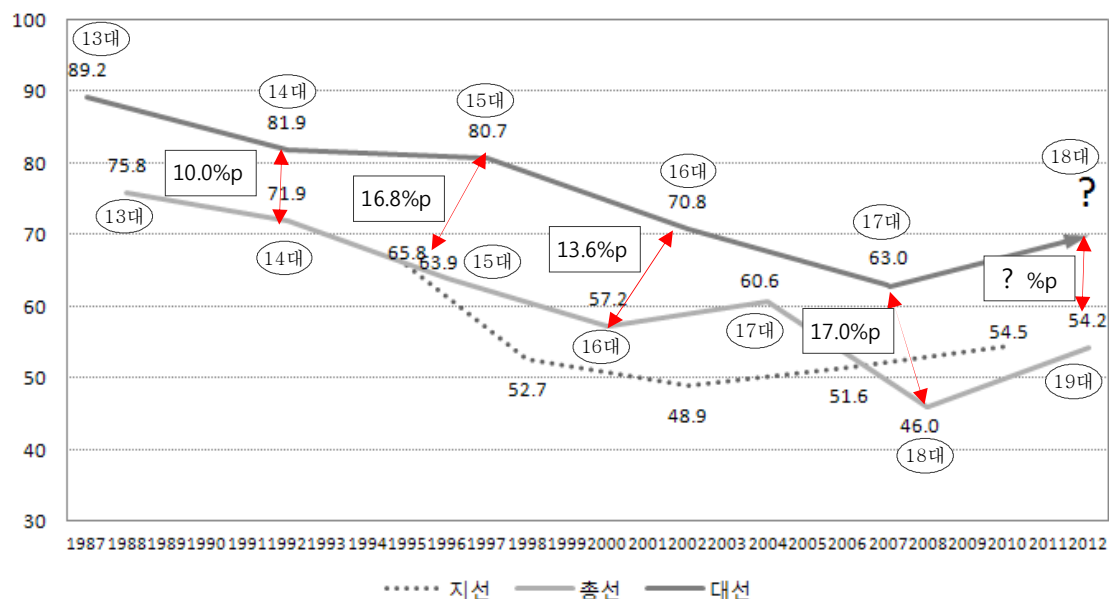
높은 경합도와 대선에 대한 관심 고조

12월 대선 투표율을 고려할 때 야당의 우세를 점치는 쪽의 주된 근거 중의 하나는 대선 투표율이 총선투표율을 뛰어넘을 것이며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참여 의지가 집중되는 대선이라는 제도적 특성과 함께 여야의 높은 선거 경쟁도(electoral competitiveness) 등으로 인해 17대 대선이나 얼마전 치러진 총선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선 투표율과 대선과 가장 근접한 총선에서의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지방선거, 총선에 비해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음이 확인된다.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열렸던 1992년 14대 총선 투표율(71.9%)와 14대 대선 투표율(81.9%) 격차가 10.0%p로 가장 적었고, 2007년 대선 투표율(63.0%)와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46.0%) 격차가 17.0%p로 가장 컸다.

또한, 투표율은 강제투표제 여부나 투표촉진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함께 후보 및 정당간 선거 경쟁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경우 논란이 되는 강제투표제나 전자투표 제도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투표촉진제도는 잘 되어 있는 편이다(이갑윤 외 2008; 조성대 2009). 더구나 선거일정상 큰 틀의 투표 제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요인은 큰 변수는 못 될 것이다. 그러나 선거경합도는 대선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쟁도가 높을수록 즉 경쟁하는 후보, 정당간 격차가 적을수록 선거 관심도를 높이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한 표의 가치 즉 투표효능감이 커지기 때문이다(Blais 2006; 이내영 외 2010).

[그림1] 민주화 이후 역대 선거 투표율 변화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2012) 결과를 필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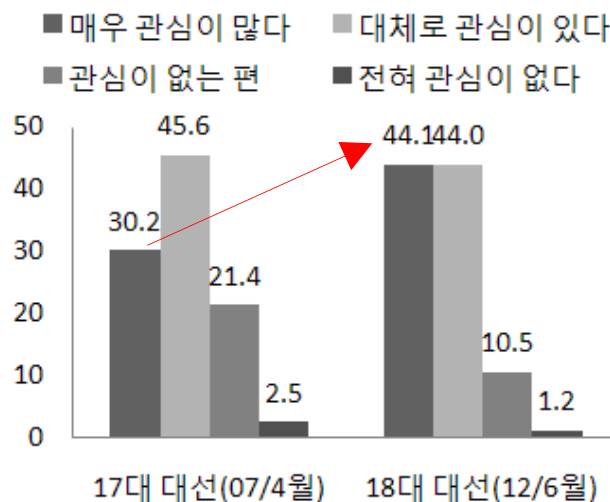




당장, 4.11 총선 개표결과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지역구투표에서 얻은 표를 합산하면, 새누리당이 9백32만여표(42.3%), 민주통합당 8백15만여표(37.4%), 통합진보당이 129만여표(5.9%)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하면 새누리당 득표에 1%p(12만여표) 정도 오히려 더 얻은 셈이다. 정당지지율을 봐도 2007년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45~50%인 반면, 야당 지지율은 모두 합해도 25% 내외로 두 배 이상의 압도적 우위를 점했지만, 2012년 현재 한나라당 지지는 35-45%를 오가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지지를 합하면 25-3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야 균형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경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 2007년 4월 패널조사와 2012년 6월 EAI·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조사에서 12월에 열릴 대선에 대한 관심도를 동일하게 물어본 결과가 [그림2]다. 2007년 조사에서는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과 ‘대체로 관심 있다’는 응답을 합하면 2007년 조사에서 75.8%, 2012년 조사에서는 88.1%로 대체로 비슷하다. 실제 투표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매우 관심 있다’고 답한 적극적 관심층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대선에 대한 관심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다. 2007년 조사에서는 30.2%에 불과했지만, 2012년 조사에서는 44.1%까지 상승했다. 2012년 대선에서의 투표율이 2007년 대선이나 4.11 총선에 비해 적지 않은 투표율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2] 17대 대선과 18대 대선 선거 전 대선 관심도 변화



자료: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 17대 1차 대선패널조사(2007), EAI·한국리서치 정기여론조사(2012.6)





3. 부활하는 세대투표 : 세대투표와 세대투표율

투표율 상승이 예상되면서 세대투표와 세대별 투표율 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세대투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2030 세대에서는 야당지지가, 5060세대는 여당지지가 뚜렷한 세대투표 패턴이 복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6대 대선에서 그 동안 한국 선거를 지배해 온 지역주의 하에서도 노무현 후보가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면서 세대투표는 정치영역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2030세대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면서 세대투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SNS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활성화되고 야당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지목되면서 다시 세대투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표1]).

우선, 세대별로 지지후보가 달라지는 세대투표 현상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이번 4.11 총선에서도 세대투표의 위력은 쉽게 확인된다. [표1]에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과 야권 후보(민주당+통합진보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20대는 25.4% 대 64.9%(민58.5%, 진6.4%), 30대는 33.8% 대 56.9%(민49.4%, 진7.5%), 40대는 30.4% 대 59.3(민52.6%, 진6.7%)로 야당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반대로 50대에서는 52.3%대 35.5%(민33.5%, 진2.0%), 60대 이상에서는 67.9% 대 23.0%(민21.7%, 진1.3%)로 세대별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대투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투표율의 상승이 특히 어떤 세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즉 세대투표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3]에서 지난 4.11 총선만 보더라도 전체 투표율은 54.2%였지만, 20대는 41.5%, 30대는 45.5%로 평균에 못 미쳤다. 40대는 52.6%로 전체 투표율에 근접했고, 50대는 62.4%, 60대 이상에서는 68.6%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따라서 대선투표에서 전체 투표율이 상승할 경우 이미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5060세대보다 2030 세대의 투표율 상승여력이 클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표1] 세대별 투표균열 : 19대 총선과 16-17대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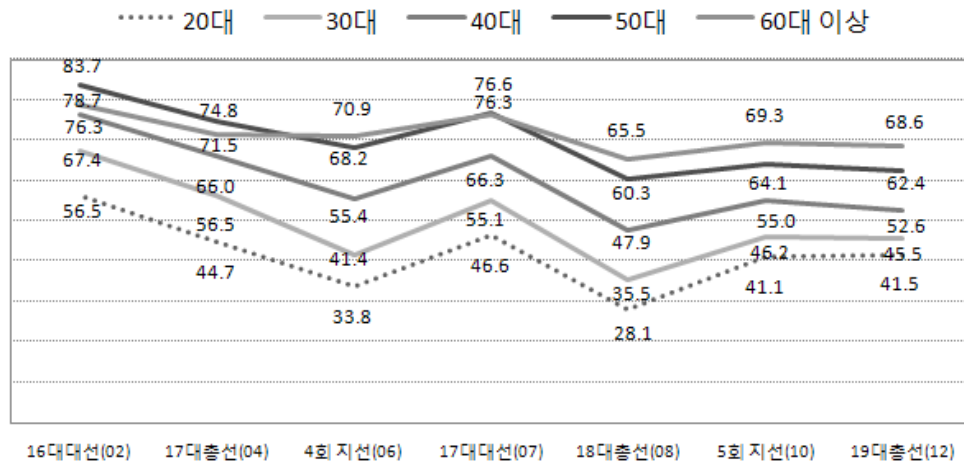
	19대 총선 (2012)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		17대 대선 (2007)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		16대 대선 (2002) MBC·KRC 출구조사	
	새누리당	민주+통진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노무현
결과	42.3 (42.3)	47.0 (43.3)	52.7 (48.7)	23.6 (26.1)	46.2 (46.6)	48.5 (48.9)
20대	25.4	64.9	45.8	21.3	34.9	59.0
30대	33.8	56.9	41.4	28.3	34.2	59.3
40대	30.4	59.3	52.2	22.3	47.9	48.1
50대	52.3	35.5	57.6	26.0	57.9	40.1
60대	67.9	23.0	70.3	19.6	63.5	34.9

주: 괄호안의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실제 득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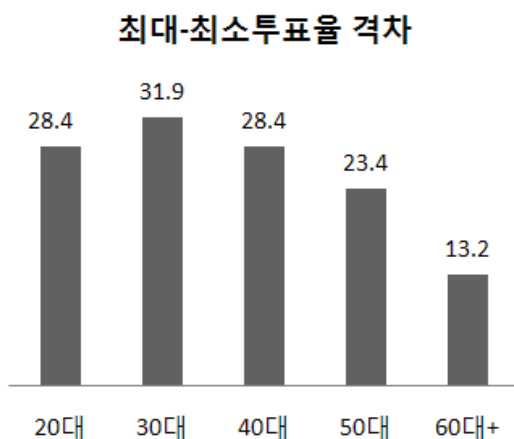
[그림3] 16대 대선-19대 총선까지의 세대별 투표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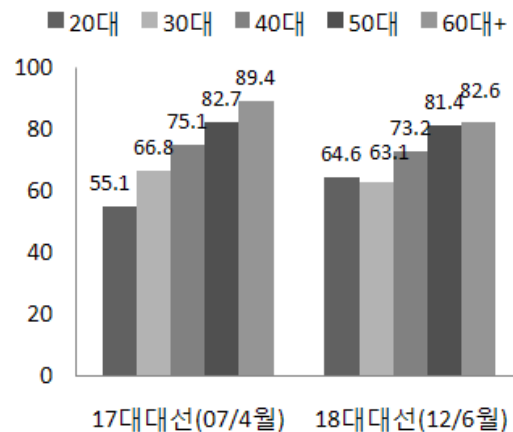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2012) 결과를 필자가 재구성.

이러한 세대별 투표율 상승여력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16대 대선에서 19대 총선까지 각 세대별 최고투표율과 최저투표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차이가 클수록 해당 세대의 투표율의 변동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표율 상승여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전국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과 가장 높은 투표율 간의 격차를 구해면 30대가 31.9%p(35.5%→67.4%)로 가장 컸고, 20대(28.1%→56.6%)와 40대(47.9%→76.3%)가 각각 28.5%p, 28.4%p의 변동폭을 보여주었다. 50대는 23.4%p(60.3%→83.7%)로 변동폭이 적지 않았지만, 60대 이상은 13.2%p(65.5%→78.7%)로 가장 적어 투표율 상승여력이 가장 적은 층이라 할 수 있다(그림4). 뿐만 아니라 EAI-한국리서치 공동 6월 정기조사에서 18대 대선에 투표의향을 물어 본 결과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의향층이 17대 대선 당시 조사결과에 비해 30~50대는 17대 대선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대에서 늘고 60대 이상에서 줄어 야권에 유리한 상황이다.

[그림4] 세대별 투표율 최대-최소 격차(%p)



[그림5] 17-18대 대선 투표의향층(6월)





4. “투표율 70% = 야당후보 승리” 공식은 타당한가?

시뮬레이션 결과 : 16대 대선모델과 17대 대선 모델의 비교

투표율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2040세대 및 현재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후보 지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40대까지 5060세대에 비해 투표율 상승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16대 대선에 비해 10%p~15%p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16대 대선에서 70.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던 결과를 상기하면서 2012년에도 대략 투표율이 70% 전후가 넘으면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의 여론지지 구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투표율 상승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대, 17대 대선 시기 세대별 투표율을 기준으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17대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가장 투표율이 낮았고,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치러진 선거의 대표적 유형이라면, 16대 대선은 세대투표의 경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선거였을 뿐 아니라 야당이 승리했던 선거로서 야권에 유리한 투표모델 유형이라고 보았다.

세대변수만을 고려할 경우 결국 투표결과에 대한 예측은 ‘세대별 투표율’과 ‘세대별 후보 지지율’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야권의 득표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원장을 야권단일후보로 간주하여 박근혜 대표와의 1:1 경쟁 시 득표력을 산정해보았다. 세대별 후보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가장 근접한 6월 30일 <EAI-한국리서치 6월 정기조사>(박근혜 46.4%, 안철수 45.4%)에서의 세대별 지지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고, 세대별 투표율은 여당에 가장 유리했던 17대 대선 시 세대별 투표율과 현 야당에 가장 우호적인 결과를 낳았던 16대 대선에서의 세대별 투표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다.¹⁾

우선, 17대 대선에서의 세대별 투표율을 기준으로 세대별 유권자 수에 세대별 투표율을 곱하고 각 세대별 지지율을 곱해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원장의 득표수를 각각 구해보았다. 전체 투표율은 64.5%로 추정되었다[(12,575,613+11,102,402)/40,181,623]. 박근혜 전대표는 5060세대에서 우세를, 안철수 원장은 2040세대에서 우세를 점했지만 역시 20대 투표율 46.6%, 30대 투표율 55.1%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과 5060세대의 높은 투표율과 박전대표에 대한 지지효과로 대략 147만여 표 가량 박근혜 전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한편, 16대 대선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대 투표율이 56.5%, 30대 투표율이 67.4%, 40대 투표율이 76.3%로 19대 총선에 비해 각각 15.5%p, 21.9%p, 13.7%p 상승하고, 50대의 경우 21.3%, 60대 이상은 10.1%p 상승한 추정치가 활용되어 2040세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 모델이다. 전체투표율은 16대 대선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72.7%로 계산되었다. 16대 대선 당시 투표율 70.8%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 따른 양 후보의 득표를 비교해보면 박근혜 대표 1천3백97만 표, 안철수 원장 천2백8십만 표로 앞의 17대 대선적용 모델에 비해 대략 40만 표가 줄어든 110만여 정도 박 전대표가 우세하다(표3).

1) 기타, 무응답은 보정하지 않고 본 시뮬레이션 표에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본 시뮬레이션은 세대별 투표율 외에 세대별 지지율에 따라 투표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확한 추정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실제 투표예측 모델이라면 모름/무응답층의 실제 투표율과 지지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표2] 시뮬레이션1: 17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 적용 시

시뮬레이션1 (17대 모델)	유권자수 19대 총선거기준	17대 대선세대 별 투표율	2012년 6월 조사		박근혜 득표	안철수 득표
			박근혜	안철수		
20대	7,313,055	0.466	0.310	0.642	1,056,444	2,187,861
30대	8,197,051	0.551	0.387	0.554	1,747,915	2,502,183
40대	8,799,775	0.663	0.418	0.504	2,438,717	2,940,463
50대	7,594,327	0.766	0.535	0.347	3,112,231	2,018,587
60대	8,317,596	0.763	0.665	0.229	4,220,307	1,453,309
전체	40,181,623	(64.5%)	0.464	0.454	12,575,613	11,102,402

주: 세대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2008) 적용.

[표3] 시뮬레이션2: 16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 적용시

시뮬레이션2 (16대 모델)	유권자수 19대 총선거기준	16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	2012년 6월 조사		박근혜 득표	안철수 득표
			박근혜	안철수		
20대	7,313,055	0.565	0.310	0.642	1,280,882	2,652,665
30대	8,197,051	0.674	0.387	0.554	2,138,102	3,060,746
40대	8,799,775	0.763	0.418	0.504	2,806,548	3,383,971
50대	7,594,327	0.837	0.535	0.347	3,400,702	2,205,689
60대	8,317,596	0.787	0.665	0.229	4,353,055	1,499,022
전체	40,181,623	(72.7%)	0.464	0.454	13,979,289	12,802,093

주: 세대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16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2003) 보도자료.

간과된 변수 : 세대별 지지율의 변화와 5060 유권자 층의 급증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체 투표결과에서는 박 전대표의 적지 않은 격차가 점쳐졌다. 16대 대선 당시에는 동일한 세대별 투표율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현재의 1:1 가상대결을 적용할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우세하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현재의 박근혜 전대표와 안철수 원장의 세대별 지지율과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 구조에 차이가 확인된다. [표1]에서 보면 당시 2040세대에서 노무현 후보-이회창 후보 간 세대별 지지율 차이는 안철수 원장-박전대표 간 지지율보다 오히려 격차가 적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후보는 50대에서 40.1%, 60대 이상에서 34.9%의 지지를 얻어 이회창 후보와의 격차를 많이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표는 5060세대에서 2002년 이회창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50대에서





34.7%, 60대 이상에서 22.9%로 당시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

한편 지금 50대는 10년 전 40대로서 당시에는 이회창 후보 47.9%, 노무현 후보 48.1%로 대등한 지지를 했던 세대인데 지금은 박근혜-안철수 원장 지지 격차가 18.8%p까지 벌어진다. 또한 지금 60대 이상은 10년 전 50대 이상 세대이다. 당시 50대에서 이회창 후보 57.9%, 노무현 후보 지지가 40.1%로 17.8%p의 격차였고, 60대 이상에서는 이회창 63.5%, 노무현 후보 34.9%로 28.9%p 차 수준인데, 10년이 지난 현재의 60대에서는 무려 43.6%p나 뒤지고 있다. 10년 전 40대 이상 세대가 10년이 지난 지금 훨씬 새누리당 후보 지지성향이 압도적으로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³⁾ 반대로 당시의 노무현 후보는 현재의 안철수 후보나 야당 후보들에 비해 5060세대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줬음을 의미한다. 이후 2030세대에서는 여전히 야당 우위의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40대에서 10년 전 40대에 비해 야당 우세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5060세대에서 10년 전의 5060세대보다 여야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우세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세대별 투표율 보다 세대별 지지율 변화 전략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4] 고령화 효과 : 2030세대의 축소와 5060세대의 증가

	총 유권자수	20대 (19세 포함)	30대	40대	50대	60대
19대 총선	40,181,623	7,313,055 (18.2%)	8,197,051 (20.4%)	8,799,775 (21.9%)	7,594,327 (18.8%)	8,317,596 (20.7%)
17대 대선	37,653,518	7,907,239 (21.0%)	8,585,002 (22.8%)	8,472,042 (22.5%)	5,836,295 (15.5%)	6,852,940 (18.2%)
16대 대선	34,990,529	8,117,803 (23.2%)	8,782,623 (25.1%)	7,837,878 (22.4%)	4,513,778 (12.9%)	5,703,456 (16.3%)
19대 총선- 16대 대선	+5,191,094	-804,747	-585,572	+961,897	+3,080,549	+2,614,14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유권자수 대비 세대별 선거인 구성비. 각 세대별 선거인 수는 총유권자수×구성비로 계산한 결과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대 총선 투표율 분석>(2012), <17대 대선 투표율분석>(2008), 16대 대선 표2. <연령대별 자료>(보도자료).

둘째,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유권자 인구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 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상이다(표4).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만 하더라도 전체 유권자 구성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3.2%, 30대가 25.1%로 2030세대만으로도 거의 과반에 육박할 정도였고, 50대는 12.9%, 60대 이상이 16.3%로 5060세대를 합해 29.2%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20대는 18.2%, 30대는 20.4%로 두 세대

2) 실제로 5060에서 지지격차가 줄어든 16대 대선에서의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세대별 지지율을 각각 안철수-박근혜 후보의 18대 세대별 지지율로 간주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약 10만표 가량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 10년 전 40대, 50세대의 10년 전 여야 지지율 격차와 현재의 여야 지지율 격차의 비교를 통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투표성향이 달라졌다는 해석은 EAI 거버넌스연구팀 팀장 이곤수 박사의 코멘트를 반영했다.





를 합해 38.6%로 10년 전에 비해 10%p 가까이 줄었고, 반면 50대는 18.8%로 5.9%p 증가했고, 60대는 4.4%p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2030세대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5060세대의 비중이 늘었다. 5060세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선거인 구성에서 560만 표가 늘어난 반면 2030세대는 138만여 표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에서 5060세대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국외거주자 유권자층이 새롭게 인입된 영향도 있겠지만, 국외 선거인 투표 허용조치 이전인 17대 대선에서도 이미 5060 세대 증가 및 2030세대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사회 고령화 현상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2030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반영된 16대 대선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박 전대표와 안철수 원장의 지지격차는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당락을 바꾸지는 못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5. 세대투표 셈법이 달라져야 한다 : 세대갈등에서 세대정치로

세대별 투표율 분석은 선거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2030세대=진보, 5060세대=보수라는 중첩된 균열이 표출되고 세대별 투표선호가 뚜렷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세대별 투표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지를 반영하는 지표일 뿐이다. 투표율이 중요한 것은 참여라는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가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독립변수가 아니다. 투표율의 상승은 여야 선거경쟁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리더십 경쟁이 정당당당하게 펼쳐질 때 얻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결과물이다.

이들의 요구를 잘 수렴하여 이익을 잘 대변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 추진과정에서 잘 소통하는 정치적 과정을 제외하면 막상 특별한 대책이 별로 없다. 물론 SNS 등을 통한 투표 독려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야간 세력균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정도였는지는 의문이다. 앞의 단순한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박전대표와 야당후보 사이의 세대별 지지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 투표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투표율 00%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전도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식이 지나칠 경우 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5060세대에 취약한 야당에서 노인의 투표참여를 꾀하는 발상이 표출되고, 2030세대의 투표율에 대한 강한 경계감이 “선관위 DDOS” 공격이라는 국가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와 야 공히 세대정치를 보는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선거에서 세대 정치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대에 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특정 세대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여 지지율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선거 정치의 본질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투표율 공식에 매달리는 것은 세대의 선거정치를 선거공학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국가의 미래 세





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대세론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 뿐 아니라 선거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현재의 우위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다. 반대로 야권의 경우 고풍화 사회 및 사회적 약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5060세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집권을 꿈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야 모두 세대정치가 2030세대 정치로 협소해지지 않았는지 되짚어볼 지점이다. 대선경선이 본격화되는 지금 투표율 공학이 아닌 세대의 선거정치가 부상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조성대. 2009. “투표참여와 기권.” 전용주 외(편)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이갑윤 외. 2008. 〈투표율 저하 원인과 제고방안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이내영·서현진·이곤수·임성학·정원철·정한울. 2010.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5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Bláis, Andre. 2006. "What Affects Voter Turnout?"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9. 111-25.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4.11 총선 및 18대 대선 특집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발간계획

1	2012-02호	장승진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2012. 4. 25
2	2012-03호	박원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2012. 4. 25
3	2012-04호	정한울	여론으로 본 4.11 총선 평가와 대선 쟁점	2012. 4. 25
4	2012-05호	정한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2012. 7. 25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판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판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민전(경희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6차 조사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